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6월 25일 (제1207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입국심사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왜 왔나, 얼마나 있다 갈 거냐, 현금은 얼마 가지고 있냐’ 등 질문을 받게 된다. 그때 정확하고 당당하게 답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얼버무리거나 어물쩍거리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자들은 미리 입국 심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한다.

천국(天國)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 입성 시에도 동일하게 입국 심사를 거친다. 역시 입국 심사 때 머뭇거리면 천국 입성이 불가하다. 우리도 공부해보자! 천국 입성 심사를 무사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왔냐?’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 ‘예수, 예수님의 은혜로 왔다.’

어느 집사님이 꿈에 천국에 갔다. 그런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 굉장히 당황했단다. 집사님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해보니 답을 알겠더라. 예수였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왔다.”라고 말하니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단다. 그렇다. 천국 입국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 여권이다. 여권 없이는 어느 나라도 갈 수 없듯이 예수 없이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그리고 “뭘 하다 왔느냐? 내놔봐라.” 하거든 당당히 말해라. “이초석 목사를 도와 안 내를 서고, 성가대를 하고, 차량봉사를 했다.”라고. 이 또한 어느 집사님의 꿈 이야기다.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그 동안 주를 위해 한 일을 내놓으라고 했단다. 그 집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했다. “이초석 목사님을 도왔다.”라고. 그랬더니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단다. 이는 이초석 개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초석 목사가 하는 주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었을지라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25:21)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신다.

천국 입성, 꼭 해야 한다. 그러니 입국 심사에 합격하도록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자.

신발이 맞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며 잘 준비하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 단거리 같은 경우야 당장 신발에 모래 몇 알이 다소 불편할 지라도 이 악물고 참으며 잠깐 견디면 된다. 그러나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우 신발이 불편해서는 절대 완주할 수 없다.

목사님이 30여 년 전 일본집회에서 경험한 신발 이야기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정확한 예라고 생각한다.

“90년대 일본집회를 다닐 때 교회의 어

주겠다면 좋은 걸로 골라 신으시라 하더군요. 골프샵에 들어가보니 백만 원 대의 비싼 신발부터 10만 원 대의 신발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살펴보다 제일 싼 신발을 골랐습니다. 가죽보다 천으로 된 것이 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회원은 돈 걱정 마시고 좋은 거, 비싼 거 신으시라 난리였지만, 나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골프 18홀을 다 돌려면 한참 걸어야 하는데 신발이 맞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발

이지 맞지 않는 사람과 무슨 큰일을 도모한단 말입니까?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소리 나는 바퀴는 빨리 갈아 끼워야 한다고. 자꾸 시끄럽게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그대로 두면 저절로 무너지고 망하기 마련입니다. 부부가 왜 갈라십니까? 성격 차이요? 결국 서로 맞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랑 이시대 목사나 지교회 목사들이 잘 맞으니 이 교단이 소리 없이 성장해가는 겁니다. 나와 해외선교팀이 잘 맞으니까 지금까지

신발이 명품인들 뭐하랴!

내 발에 맞아야 명품이다

봉우 이초석 목사

함께 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한다

는 장애인 성도가 아주 멋진 악어가죽 신발을 사주며 꼭 신고 가시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신고 가시나 안 신고 가시나 공항까지 나와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꼼짝없이 그 신발을 신고 떠났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에노 공원의 노숙자들을 위한 집회가 있어 제자들과 우에노 공원을 걷는데 발뼉뽀치가 다 까져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걸 어다녔드랬습니다. 신발이 악어가죽이면 뭐합니까? 내 발에 맞질 않는데. 그 후로 캐나다 집회차 토론토에 갔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회원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나는 골프신발부터 사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큰 주유소를 여러 개 경영하는 회원이 사

에 잘 맞으면 그게 최고다.’

나는 이 경험을 우리 인생에 확장하여 그대로 대입해도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상대가 아무리 아름답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행복을 가져다줄지? 부부가 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가다가도 다투기 십상인데 아예 바라보는 곳부터 다르다면 이 기나긴 인생을 어쩔 겁니까?

하다못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구성할 때도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아 인선하지 않습니까? 코드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가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는 사람 쫓다가는 그 문제로 신경 쓰느라 정작 제일 중요한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가는 곳이기에 목사는 다 품고 가야하지만, 함께 일하는 스텐은 나와 맞아야 소리 없이, 불평 불만 없이, 분쟁이나 갈등 없이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반주자들과도 잘 맞습니다. 음향 및 방송 담당자들과도 잘 맞습니다. 내가 간혹 핀잔을 줘도 왜 그러는지 알고내 맘을 압니다. 그러니 잘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신발이 명품이면 뭐합니까? 내 발에 맞아야지. 맞아야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5:7)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저에게는 39년을 함께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노력’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는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기도’라는 제 친구를 전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39년 전, 저는 철산리 지하에서 한 명을 놓고 묵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에서 학잠을 자며 기도했습니다. 일꾼을 보내 달라, 능력을 달라, 은혜로운 찬양을 하게 해달라... 밤새 기도해도 모자랐습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이네 잘못됐네’ 라며 교계는 물론이요, 매스컴까지 합세하여 저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뽑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외로 나가게 하였고, 서서히 지경을 넓혀 지금은 세계 73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드릴 때의 일도 생 각합니다. 88올림픽 성공 기념축제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인지라 올림픽공원 내의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교회로서는 당장 예배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 행정을 보던 박대경 장로가 이런 사실을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걱정 마. 하나님이 예비 하실 거야.”라고 했더니, 박 장로 하는 말이 “참 황당무계하신 분이시네. 국무총리가 인준한 국가행사인데 무슨 수로요?” 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형 태풍이 비바람을 몰고 오는 바람에 올림픽공원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그대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 말할까요? 몽골 메인스타디움 집회 때의 일입니다. 집회를 앞두고 울란바토르의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맥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거센 돌풍까지 일 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간절히 부르짖 어 기도했습니다. 집회 시간이 다 되어 메인스타디움을 향해 갈 때까지도 비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회 장소에 도착할 때쯤에 돌풍이 잦아들고, 시커멓던 하늘이 물러나며 일곱 색깔 무지개가 드 높게 떠올라 무사히 집회를 마쳤습니다. 2003년 슬라바 목사와 저는 키르기스스탄 집회 때 KGB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울던 아이도 그치게 한다는 무서운 곳입니다. 슬라바 목사와 저는 스산한 기

운이 감도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한참을 대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슬라바 목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둘이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사히 그곳을 나올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들이 저를 경호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묵회 39년은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해외선교 팀원인 한은택 목사가 교회 신분 갈등난에 썼습니다. 해외 집회 중 아침에 제 호텔 방에 들어가 보니 이불에 들어간 흔적은 없고, 침대 밑에 겹쳐 깔아 놓은 수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두 무릎 자국만 보였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고요.

왜 제가 이렇게 기도에 전념할까요?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기도는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다 기도로 열고 풀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그러므로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문제와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지략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각지와 족장들과 회의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고기가 없을 때도, 물이 없을 때도, 적들에

게 길이 막혔을 때도 그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행(施行)이 됩니까? ‘실제로 행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삶이 갈(渴)하고 넘(滿)하지 못

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16:23~24).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부족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도하면 네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못하십니까? 바빠서요? 제가 알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돌며 살아가는 정도로 능력이 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잘 나가던 때에 뵈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이 목사,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몇 년이 못 가서 그분의 목회는 곧두박질쳤고, 지금은 비참하게 살고 계십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빠 뛰어

다녀와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시간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총을 쏘 봐야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한 번 휩 불어주시면 이빨에 낚 만큼 메추라기가 잡힙니다. 흥해요? 다리를 놀 겁니까? 해저터널을 뚫을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물을 세워 벽을 만드십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집니다.

배터리 떨어진 핸드폰, 기름 떨어진 자동차, 산소가 떨어진 산소통...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물 떠난 고기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 파리떼만 꼬이지요. 귀신만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문제만 생기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는데, 마귀는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먹고 병어리 된 귀신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문제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의 일생을 살아봅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시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탈 나지 않고 갈 수 있고(벧전4:7),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눅22:46), 귀신을 쫓을 수 있어 사는 동안 삶에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막9:29).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렘33:3). 필요하다면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십시오(마6:6).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시126:5), 감사로 기도하십시오(빌4:6).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마18:19). 그러면 해결됩니다. 절대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건축하라

우리는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만 하는 것이다(유1:20).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 위에 자신을 잘 건축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몸매에 의해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을 행한다. 이는 주님의 뜻이다. 성찬식에 나오는 것은 피가 아니고 포도주며, 살이 아니고 떡이지만 이를 먹고 마시면서 자기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의 살이 있음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곧 확신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라 하시므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주안에 있다는 것이며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이란 우리가 주 예수로 인해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성경에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영혼을 망쳐 버

린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충성하게 하였고, 성령을 주셔서 항상 감동된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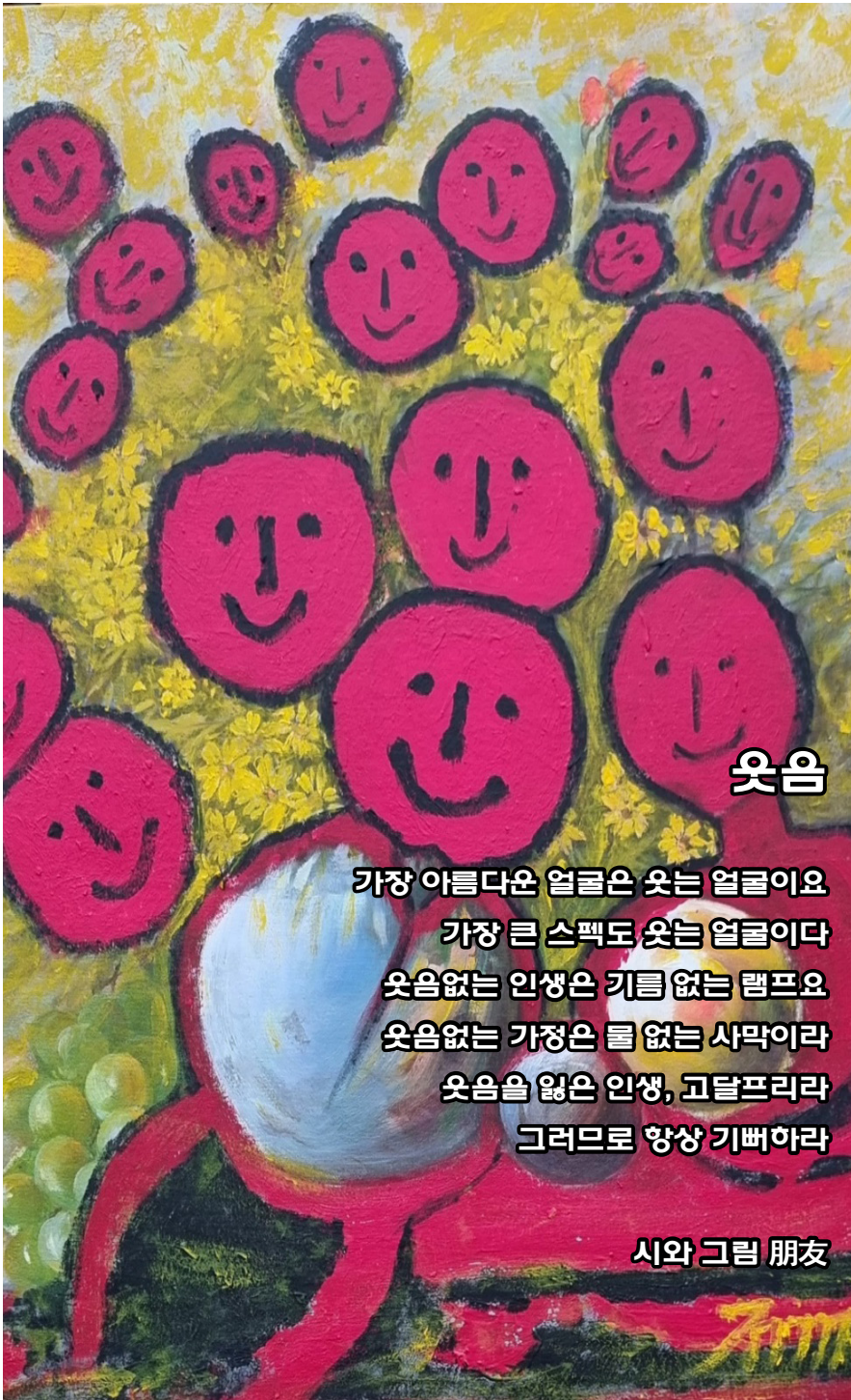
신앙생활에서 타락이란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신앙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찰흙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신다. 각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으며, 주의 재림 또한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는 재림이라고 경고하신다. 우리 신앙은 항상 전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유혹자들과의 전투라는 것이다(엡6:12).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생활, 날마다 목숨을 내놓고 악한 원수들과 싸우는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철두철미하게 이를 보전해 나가야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16).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웃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이요
가장 큰 스펙도 웃는 얼굴이다
웃음없는 인생은 기름 없는 램프요
웃음없는 가정은 물 없는 사막이라
웃음을 잃은 인생, 고달프리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시와 그림 朋友

:: To Be Succeeded ::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마라.’

어느 날 안팎의 여러 일로 계속 생각하고 있던 내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다(잠4:23). 생각이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니 내 인생과 영생은 곧 나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과 없이 들어오고 나오는 생각과 말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새 나의 영혼은 병든다. 목사님은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말을 혼자 하든, 누군가와 하든 그것은 내 집 안방과 거실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잔뜩 쏟아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쓰레기가 있으면 벌레가 모여드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방치하면 악한 영과 귀신들이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껏 기도하고 예배드려 축복받을 준비가 된 내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에, 내 스스로 쓰레기를 갖다 놓아 더럽힌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 내 생각과 말을 하나님 말씀의 채로 걸러내야 한다. 영의 생각만이 나로 하나님 뜻

대로 살게 하고, 내 영·혼·육에 생명과 평안이 되어(롬8:6~8) 나를 복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과 말을 말씀의 검으로 반드시 걸러내야 내가 살고 내 가정과 기업이 산다. 아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여 불순종함으로 인류 죄악의 시조가 되었고, 사울 왕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가져다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니 질투와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룯은 이방 여인들이임에도 불구하고 복된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여인들이 되었고, 나아만 장군 역시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진다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담갔더니 문둥병을 고침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나는 지금 어떤 말과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주야로 말씀의 거울로 부지런히 나를 비취본다면, 내 생각과 입술을 지켜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환난에서 면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는다. 할렐루야!

이국진 사모

:: 낮은 울타리 ::

결단이 필요한 때

잘 안 풀리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 힘이 들 때 우린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지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저도 직장 일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집중을 잘하지 못하기도 했고, 기도할 때도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고만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힘든 저의 마음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춘계산상집회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은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위로가 아닌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성령을 회복해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힘든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위로를 구할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여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산상집회 기간, 저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 마음이 힘들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신앙 생활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고,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더 강하고 평안해진 마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위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것에 맞춰 결단하여 다시 나의 태도와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집회를 다니시면 목사님은 많은 문제와 마주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리라 결단하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나의 태도를 바꿔 보겠다는 결단으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쟁취하겠다는 결단으로 고난을 통과해 봅시다.

장수정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라



어머니가 담당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꾸준히 전도하러 나가던 무료급식소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임, 행사, 집회의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으나 무료급식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전도할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그 건너편 공원에서 노래 자원봉사단이 공연을 재개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보러 400~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다!’ 그 영혼들을 바라본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곳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얼마 후, 자원봉사단장님을 찾아가 허락을 구하고, 커피를 나눠주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단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방문하셨는데, 단장님은 담임목사님을 극진히 선대하며, 무대에 올라 기도해달라는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담임목사님께서 자원봉사단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자원봉사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전도는 하고 있었지만, 가요를 세상 노래라고 멀리하며 좋아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은 찝찝함과 여러 가지 영적 싸움으로 번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원봉사단장님에 대해, “그 종은 도시 한 복판에서 기도하는 종, 나를 찬양하는 종”이라고 응답하시며, 기도도 공연을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찬양을 하던 단장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며, 어머니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9:19~23). 몇 주 뒤, 단장님이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어머니를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단장님은 타 교단의 수석장로님이고, 소천하신 그의 아버님은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베뢰아 출신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조석 목사님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그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색소폰을 연주하는 단장님은 영혼을 건지려면 그들의 수준과 환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8년 노래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로 모임을 제한하던 시기 외에는 공연을 멈춘 적이 없었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셨던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단장님은 다음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으며 친아버지를 뵈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어머니는 오래전에 교회에 잠시 나왔다가 발길을 끊은 남편이 가요를 매우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아버지의 노래를 녹음으로 들려드렸는데, 단장님은 아버지의 노래 실력을 칭찬하며 공연에 한번 모시고 나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시큰둥했지만, 계속된 어머니의 설득에 결국 그 무대 위에 올라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단장님은 아버지에게 다음 주에도 꼭 나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무대에서 방금 노래 부른 가수가 커피 대접하는 전도사님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주일날 우리 교회 버스 출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공개적으로 광고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주에도 공연 무대에 오른 아버지는 쟁반을 들고 어머니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기까지 했는데, 교회도 나오기 전에 전도를 돕는 신기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원봉사단에 합류한 후, 단장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전도하셨고,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한 날, 단장님은 아버지를 위해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타 교단 수석장로인 단장님이 주일에 본 교회 대신 우리 교회에 오셔도 괜찮으신지 묻자, 단장님은 “천하보다 귀한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하며, 아버지가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단장님의 진심에 응답하듯,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맘을 녹이셨네~”,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인도하셨고, 단장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더 적극적으로 매주 토요일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의 커피 전도를 돕고 있으며, 주일 아침에는 공원에서 출발하는 교회 버스 앞에서 전도한 어르신들을 영접한 후,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남편도 교회 나가느냐는 물음이 따라와 아픈 마음을 숨기고 웃음으로 넘긴 적이 많았습니다. 평생소원인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온갖 애를 써도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세상 노래라고 멀리했던 가요가 징검다리 되어 어르신들을 전도하던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곳의 많은 어르신들도 가요를 들으러 왔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되고 있습니다.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시147:5)이라고 수없이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나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모세, 에스더, 기드온 등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진정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외치시는 것처럼,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명관

시대를 배우라

지난 5월, 한 미디어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이 컨퍼런스에 가게 된 것은 ‘최선을 다해 배우라(Do your best to study)’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AI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자 함이었다. 강의 내용은 ‘AI시대에 교회의 미디어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단연 화제는 챗GPT였다. 챗GPT는 인공지능 기업 오픈에이아이(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언어모델이다. 광범위하게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되어, 주어진 질문에 문장으로 답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요즘은 이 챗GPT가 노래를 작곡해주고, 논문을 써주기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목사의 설교문을 대신 작성해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챗GPT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었을 때, 챗GPT는 ‘인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인간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I는 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답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께 행했던 언약의 불순종과 동일한 모습이어서 소름이 돋았다. 어찌 보면 챗GPT는 우리의 거울인 것이다.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진 챗GPT가 그것을 그대로 학습한 것이다. 얼마 전 첨단기술기업 최고경영자와 연구자들 1,000여 명이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우리 사회에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인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며,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AI) 개발을 6개월 동안 중지하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는 아직 인공지능 개발경쟁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시대가 무분별하고, 개혁이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는 ‘성경 중심’이라는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며 최선을 다해 이 시대를 배워야 한다. 배움만이 기술과 산업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다.

송현혜 생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6~7절)

내 삶에
남에게 돌 맞을 일을 했나 생각해보자
-봉우

2023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 7월 24일(월)~26일(수)
대학청년부: 7월 27일(목)~29일(토)
문의: 02. 533. 9191